

131년 전 동학농민군 함성 다시 한번

정읍시, 10일·11일 천변어린이축구장 일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894명 진군행렬 재현...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 추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에서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린다.

정읍시는 10·11일 양일간 천변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131년 전 동학농민군의 우렁찬 함성이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제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1894명(동학농민혁명 발생 연도 상징)의 대규모 진군행렬을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역압에서 피어난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의 백미가 될 '1894 진군행렬'은 동학농민군이 정읍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던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재연하는 과정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참가자 전원이 농민군 복장을 하고 정읍 시내를 함께 행진하며 그날의 기개를 다시 펼쳐 낼 예정이다.

황토현 전투 승리는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에 대항해 최초의 대승을 거둔 날로 혁명의 전략과 세력이 결집해 이룩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혁명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여기에 더해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참가자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가 참여해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념제의 세계화와 전국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념제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고부관아 복원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성찰하게 하는 민중사적 유산"이라며 "혁명 도시 정읍이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요천변 '춘향-몽룡' 대형 꽃 조형물 인기 폭발

라난쿨러스 등 봄꽃 50만본 식재 SNS 통해 인생샷 성지로 각광 '춘향제' 인산인해 속 성료



제95회 춘향제에서 인기를 끈 요천 일대 춘향-몽룡 대형 꽃 조형물.

제95회 춘향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남원 요천 일대에 조성된 대형 꽃 경관이 관광객들로 부터 인기를 끌었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광한루원, 요천 둔지, 시가지 일원 등에 루피너스, 페추니아, 라난쿨러스 등 다채로운 봄꽃 50만본을 식재해 풍성한 경관을 연출했다.

이 중 요천변 승월교-춘향교 일원의 8m 크기 대형 '춘향-몽룡 꽃 조형물'과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시작되는 보름달 조형물'은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 중 SNS를 통해 포토 장소로도 각광받았다.

대형 꽃 경관과 함께 승사교 유채밭에서 운영된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역시 호응을 얻었다. 교복을 입고 유채 꽃밭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가족, 친구, 연인 등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또 요천변 약 1.7km에 조성된 '은하수 아간 조

명'은 환상적인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꽃 경관 조성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전통과 감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스토리를 살린 공간 연출로 남원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무장읍성에서 온 가족 추억 만들기

내일 축제...역사 골든벨·그림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고창 무장읍성에서 10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읍성 축제가 열린다.

무장읍성(사적 346호)은 호남방어 요충지로 왜적 침입을 막고자 관과 민이 호국정신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축조한 읍성이다.

특히 동학동민혁명군이 무장기포지에서 포고문

을 선포하고 봉기한 후 최초로 무혈입성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무장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다양한 신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역사 골든벨 ▲함께 그

리는 무장읍성 그림대회 ▲무료 체험 프로그램 ▲성 밝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됐다.

축제 사전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이벤트, 축제 종료 후 꽃화분 증정 이벤트, 무장읍성을 한 바퀴 돌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성 밝기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최순필 고창군 고창세계유산과장은 "무장읍성 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육적이고도 재미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즐기며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도로 방음벽에 '새 충돌 방지' 시설

털새·철새 등 야생조류 보호



정읍시가 털새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정읍시는 국도 29호선 영원로에서 고부 방향으로 이어지는 4단 방음벽 구간에 조류 충돌 방지용 점무늬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읍에 서식하는 털새는 물론, 계절에 따라 정읍을 통과하는 철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폐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새들은 눈이 머리 양쪽에 위치한 신체 구조상 정면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유리 구조물은 거의 감지하지 못해 충돌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창이나 방음벽에 일정한 간격의 점 또는 선형 무늬 스티커를 부착하면, 새들이 이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어 충돌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영원로 구간 방음벽에는 점무늬 패턴 형식의 스티커가 사용됐다.

시는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

방 조류' 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023년에는 월영1길 방음벽과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 지난해에는 월성교 2단 방음벽과 월성길 인근 1단 방음벽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고향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28일까지 대리구매 등...적발땀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향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고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하는 사례 등이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의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민안 고창군 생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전북형 반할주택 100세대 공급

2029년까지 향교동 일원...청년·신혼부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이 남원에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남원시는 전북개발공사와 기본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꾸려질 실무협의회는 남원시와 전북개발공사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구성되며,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사업 후보지 개발 방향 설정 ▲사업 추진 일정 협의 ▲입주 수요 반영 방안 ▲남원시-전북개발공사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는 향후 실시설계, 인허가, 착공 등 단계별 일정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반할주택은 향교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